

# “장성군에서 재배한 명품 ‘안평쌀’ 대령이오”

### 농촌진흥청 개발 ‘안평’ 품종 전남 최초 도입 올해 시범사업 18.5헥타르(ha) 남면에 조성

장성군이 지난 8일 군청 백암홀에서 안평쌀 시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군의회 의원, 실과장 등이 참석해 안평쌀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안평’ 품종은 2020년 최고 품질 쌀로 선정됐을 정도로 뛰어난 밥맛을 자랑한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8.5헥타르(ha) 규모 단지를 남면에 조성해 ‘안평’ 재배에 뛰어 들었다. 전라남도 최초 도입으로 파종부터 수확, 관매,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전문가 교육과 현장 상담으로 참여 농가 기술력을 끌어올린 점도 이목을 끈다. 군은 △

파종량 준수(모판 당 150g) △드문 모심기(평당 50주) △질소질 비료 정량 준수(10아르 당 7kg) △병해충 적기 방제 △물 관리 등 명품 쌀 생산을 위해 재배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쌀 성분도 뛰어난 것으로 판명됐다. 농촌진흥청 고품질 쌀 선정 기준은 단백질 6.5% 이하, 아밀로스 20% 이하인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쌀 분석기 측정 결과 안평쌀은 단백질 5.7%, 아밀로스 18%로 선정기준에 충분히 부합했다.

안평쌀을 생산한 백순호 글로벌장성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장성 지역에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소비자 만족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밥맛이 달고 찰기가 돌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성 대

표 쌀 품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화순군, 지리적표시 농산물 ‘작약’ 수매...1억원 투자키로

화순군은 지리적표시 농산물인 ‘작약’ 수매를 화순군한약재유통센터에서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등록 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물을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도모하고 특산물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화순군 지리적표시 농산물은 제42호 ‘화순 작약’과 제43호 ‘화순 목단’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다.

화순군 토성의 88%가 물 빠짐이 좋고 햇볕과 바람, 유기질 함량이 높은 사양토 또는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어, 2012년 등록 당시 재배면적이 141ha였으나, 작약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생산 면적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도태 및 소멸하지 않고 보존하고자, 화순군에서 1억 원을 투자하여 kg당 3,500원 미만일 경우 kg당 최대 6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순군에 영농체 등록이 된 필지에서 재배한 작약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화순군한약재유통센터에서 수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작약 식재 농가에 종근 가격 평방미터(m<sup>2</sup>) 당 500원을 지원하고, 화순군 생약초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유박 구매 비용도 포당 5,000원을 지원하였다.

화순=박순철기자

# 행복을 전하는 나주천연염색재단, ‘행복한 공예교육’ 성료

### 노인요양원·섬 지역 분교 등 문화 소외 시설 15곳 대상 문화 향유 기회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 이하 재단)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추진해왔던 ‘행복한 공예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행복한 공예 교육’은 공예문화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에서 지난해 추진해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사업이다.

전국 권역별로 공예가들과 문화소외계층을 상호 연계해 공예가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재단은 지난 2월 사업 선정을 통해 공예가 4명이 한 팀을 이뤄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문화소외시설 15곳에서 공예 교육 프로

그램을 진행해왔다.

천연염색, 도자기, 목공예, 토탈 공예, 원예, 섬유공예 등 시설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과목을 선정하고 10회차에 걸친 교육을 통해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나주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선 지난 달 한국천연염색박물관(관장 임경렬) 기획전시실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직접 만든 섬유 작품을 전시해 사업 성과에 의미를 더했다.

임경렬 재단 상임이사는 “행복한 공예 교육을 통해 노인요양원, 섬 지역학교, 장애인 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행복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천연염색뿐만 아니라 공예와 같은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 구례군 토지면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쓰레기 집하장



구례군은 지난 11월 2일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토지면 봉소마을과 송정마을, 중기마을에 목재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시골 마을의 흉물스러웠던 쓰레기 집하장을 아름다운 목재디자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에 설치한 쓰레기 집하장에는 외부에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고 동물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지붕과 출입문이 설치됐다.

주민과 방문객들은 마을 경관과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이라며 호평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그동안 마을에 있던 쓰레기 집하장은 낡고 비좁으며, 쓰레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마을 풍경을 저해했었다”며, “이번에 설치한 집하장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도 돋보이게 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전했다.

한편 토지면은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대상으로 1년차 사업대상 7개 마을을 포함한 총 22개 마을이 선정됐다.

구례=박진호기자

# 곡성군,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준공식 개최

### 향토 맨발 걷는 길 큰 인기 보여

곡성군이 지난 8일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환경부와 ‘도시생태복원25+’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도시 생태축 복원을 목표로 삼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는 동악산과 섬진강

을 연결하는 중심지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 삿,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도심 난개발과 경작지 확장으로 인해 생태축의 단절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에 곡성군은 훼손된 생태축 복원을 통해 녹지축과 수생태축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 서식처를 조성해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의 완료

로, 이곳은 다양한 동물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또한 생태습지, 생태굴길, 생태 관찰로 및 생태서식처 등을 조성하면서 생태 관광 명소로서 지역사회에 자연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토 맨발 걷는 길을 조성해 이곳을 찾는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앞으로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가 침실습지와 함께 곡성군의 생태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길 바란다.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과 충의공원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생태관광 자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